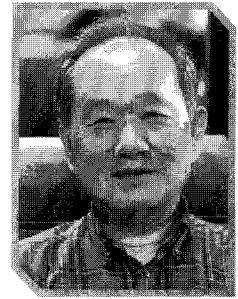


축산 위상 걸맞게 대접받을 그날은 언제인가



윤봉중
축산신문 회장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우리 주변의 이런 저런 것들을 10년, 20년,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했다. 우리의 일터인 축산 현장, 관련 산업의 현장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우리 축산업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다시 말해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등 10년 단위로 대별해 보자.

우선 30년 전인 1980년대 우리 축산은 그야말로 부업 축산 시대로, 농가소득원으로서 주품목이 아닌 ‘보조 품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산업 수준이 그렇다보니 농가에서 가축 사육을 조금만 늘려도 과잉 생산으로 불황을 겪었으며, 또 조금만 줄여도 모자라 외국에서 축산물을 수입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던 축산업이 90년대 들어 개방이란 큰 파고를 맞으면서 ‘이땅에 축산은 없을 것’이라는 ‘축산 퇴출론’을 무색케하며 전업화 규모화의 바탕 위에서 ‘차별화’, ‘고급화’라는 키워드로 더욱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그렇게 거듭났다 싶었던 축산도

2000년대 들어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맞는다. 질병, 위생, 안전 문제가 그것이다.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닭 AI에 이어 미국발 광우병 파동은 품질 경쟁력도, 가격 경쟁력도 소용없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우리 축산업은 그 벽을 뛰어 넘었다. 항생제 사용 규제, HACCP 도입, 친환경 축산 인증, 생산이력추적제 등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축산물의 생산에서 식탁까지의 안전 관리를 선진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것은 우리 농업이, 우리 농촌이, 우리 농민이 그동안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이 땅에 축산이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씻고 30년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그 위상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제 축산을 농업의 여러 가지 품목중 작은 품목의 하나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축산을 ‘부업 축산’이라거나 농가 소득원의 보조 소득원으로 인식하는 농가는 거의 없어졌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축산업은 농촌의 주 소득원으로, 농촌 경제를 지키고 육성 발전시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것은 최근 농림업생산액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2008년도에 생산된 품목별 생산량에 농가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농림업 생산액은 39조6천626억원으로 전년도 35조8천372억원보다 3조8천254억원(10.7%) 증가했다. 이 통계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축산부문 생산액의 증가다.

지난해 축산부문 생산액은 13조 5천9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에 해당하는 2조3천156억원이 증가했다. 이 같은 축산부문 증가액은 농림업총생산액 증가비 10.7%와 비교할 때 거의 두배에 해당된다. 그동안 농촌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미곡 생산액 9조3천796억원과 비교하면 더욱 놀랍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미곡 생산액은 축산업을 웃돌았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미곡 생산액과 축산업과의 차액이 4조원이 넘게 벌어질 정도로 미곡의 위상은 떨어지고 축산의 위상이 우뚝 섰다.

뿐만 아니라 품목별 생산액 순위에서도 축산 관련 품목인 돼지, 한우, 우유, 닭, 계란, 오리 등이 2~7위를 차지함으로써 축산은 과거 농업 범주에 속한 작은 산업이 아니라 농업을 앞서 이끄는 당당한 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축산의 위상이 쌍전벽해와 같이 달라진 것은 축산물 소비와 쌀 소비 변화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30여년 동안 축산물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쌀 소비는 하향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따라서 축산업은 이제 농촌 경제적 측면에서나, 국민 식생활 측면에서 농업의 종속적 개념이 아닌 농촌 경제를 이끌고, 국민 식생활을 선도하는 주도적 개념으로 그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축산업의 위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위상이 오늘의 그것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란 점도 간과할 할 수 없다. 농경연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서 동물성 단백질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우산업의 경우 한 때 40%대도 위태로웠던 자급율이 50%를 육박하고, 나아가 60%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을 정도로 희망적이다.

문제는 축산의 이 같은 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농업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오늘의 축산업이 30년 전의 축산인양 농업의 종속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행정 조직이나 산하 기관 단체의 조직 개편시 축산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여기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고,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축산 산업이 농촌경제나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걸맞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